

다산포럼

‘임을 위한 행진곡’ 그 화려한 부활!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지난 토요일, 평화포럼으로 떠난 익산과 변산반도 산책길에서 경이로운 전을 맞보았다. “...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합성/ 앞서서 나다니 산 자여 따라라.”

산천이 확 트인 곳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잠시 쉬는데 일행 중 한 분이 이 노래를 선창했다. 그러자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같이 노래하며 기차놀이를 벌였다. 앞서서 어깨 위에 두 손을 얹으니 사람 기차 칸이 순식간에 만들어진다. 리듬을 타며 몸이 연대하며 유쾌하게 전진한다. 한번은 왼발로 바닥을 차며 뺨고, 이어 오른발로 바닥을 차며 전진하는 기차놀이를 끌어낸 이 노래는 동행한 우리 모

두의 몸과 마음에 경쾌함을 안겨 주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칸에서 동영상으로 이 장면을 일행과 함께 다시 보노라니 기록과 기억의 의미가 온몸과 맘에 정하게 전해 온다.

2009년 이후 중복 시비에 몰려 수난을 겪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렇게 경쾌하게 들리다니! 2002년 월드컵 응원가로도 불렸던 국민 통합의 노래조차 불편했던 권력이 검열했던 기억. 그러나 곧 다가올 5월 18일엔 적폐 청산의 신평탄처럼 이 노래가 제창될 것이다. 억압의 기억을 뚫고 터져 나오는 예술의 힘이다.

이 노래는 나에게 1980년 서울역 광장과 최루탄으로 얼룩진 속삭임의 기억, 그리고 ‘화려한 휴가’(2007, 김지훈)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해 준다. 영화는 광주 지역의 일일적 풍경 속에 들어타치는 신군부의 참혹한 학살극을 그려 낸다. 전선에 배치됐던 공수부대원들은 명령에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변에 황당해 하면서도 시민을 폭도로 몰아 총격을 가한다. 금남로 참극을 목격한 시민들은 시민군 민주 투사로 변한다. 그런 투쟁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 영화의 주제곡으로 작동한다.

노래 한 곡으로 촉발된 감개무량한 마음은 수난을 겪은 지구촌 다른 곳의 또 다른 노래를 연상시킨다. 바로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예즈’(La Marseillaise)이다. 이 노래는 1789년 시작된 혁명의 열기에 힘입어 출정하는 프랑스 북부 라인강 지역 지원병을 위해 스트라스부르에서 만들어진 ‘라인군을 위한 군가’였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 남부 마르세이유 지원병이 이를 합창해 부르며 파리로 행진해 오면서, 곡목이 ‘라 마르세이예즈’로 바뀐 것이다. 이 노래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 곧 프랑스 국가로 정해졌다. 그러나 불편함을 느낀 나폴레옹, 부르봉 왕조 권력의 검열로 금지됐다가 1879년에 다시 국가로 복원되었다.

이 노래는 여러 영화에서 미술적 힘을 발휘하는 메타포로 사용된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카사블랑카’(Casablanca, 1942, 마이클 커티즈)에 나오는 명장면이 그렇다. 옛 연인 일리자(인그리드 버그만)의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탈주를 돕는 멋진 남자 릭(험프리 보가트)의 고뇌가 인상적인 리스 카페의 한 장면이다. 독일군 점령 모로코에서 독일 장교가 카페 악단에게 독일 군가 연주를 지시한다. 그러자

프랑스 레지스탕스 청년이 분노하며 악단에 ‘라 마르세이예즈’ 연주를 청한다. 노래가 연주되자 카페에 있던 프랑스인이 모두 일어나 열정적으로 노래한다.

“가자 조국의 아이들아/ 영광의 날이 왔다/ 우리에게 맞서 압제가/ 피 묻은 깃발을 들었다... 무리를 지어라/ 전진하자, 전진하자!”

‘위대한 환상’(La Grande Illusion, 1937, 장 르누아르)의 배경인 포로수용소에서 이 노래는 역동적 힘을 발휘한다. 축구 영화의 명작으로 꼽히는 ‘승리의 탈출’(Victory, 1981, 존 휴스턴)에서는 이 노래가 나치로부터의 탈출극에 도움을 준다. ‘라 비 앙 로즈’(LA VIE EN ROSE / LA MOME, 2007, 올리비에 다한)에서도 이 노래는 역동적 힘을 발휘한다. 축구 영화의 명작으로 꼽히는 ‘승리의 탈출’(Victory, 1981, 존 휴스턴)에서는 이 노래가 나치로부터의 탈출극에 도움을 준다. ‘라 비 앙 로즈’(LA VIE EN ROSE / LA MOME, 2007, 올리비에 다한)에서도 이 노래는 역동적 힘을 발휘한다. 축구 영화의 명작으로 꼽히는 ‘승리의 탈출’(Victory, 1981, 존 휴스턴)에서는 이 노래가 나치로부터의 탈출극에 도움을 준다.

노래하며 몸과 마음에 리듬의 떨림을 주며 퍼져 나가는 이 경이로운 파장! 앞서서 나다니 산 자여 따라라’라는 외침은 ‘무리 지어 전진하라’ 현재진행형 역사 만들기 파장을 세상에 전파하는 중이다.

교단에서

굿바이, 스승의 날



김진구
우산중학교 교감

지어 해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날이다.

금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라 속이 더 상했다. 시인 서정주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한 송이 카네이션을 선생님께 건네기 위해서는 봄부터 대표학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금품이나 선물 금지는 당연한 일이지만 꽃 한 송이를 놓고 이렇게 범망을 씌워놓았다. 학생 개인은 안 된다. 학부모도 안 된다. 반장이나 학생회장이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한다. 손 편지는 가능하지만 종이꽃은 안 된다.

청탁금지법 취지를 찬성하지만 스승의 날을 조이고 있는 꽃 한 송이 축제는 선생님의 자존을 함들게 한다. 상징적인 꽃 한 송이를 놓고 사제간의 정리보다는 이해당자사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다. 선생님이 받은 제자의 손 편지와 종이꽃의 차이는 무엇일까. 손 편지는 존경이고, 종이꽃은 뇌물인가.

사람들은 모여서 365일 중 어떤 날을 정하고, 거기에 의미를 새긴다. 하여 기념일이 만들어지고 축하나 추모를 한다. 그런데 스승의 날처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부침과 영욕이 반복된 기념일도 드물 것이다. 1973년 정부는 서정쇄신 차

원에서 사은행사를 규제하고 스승의 날을 폐지했다. 그러다가 스승을 공경하자며 1982년 기념일로 제정되어 되살아났다. 선생님들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등 귀감이 되는 사례도 많지만 사제간에 공경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요새 아픈 선생님들이 많다. 경력 10여 년인 초등학교 한 선생님의 메모를 보면 지금 카네이션을 받네마네 하는 차원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특별 한 사례 같지만 교단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어서 소개한다.

“전학도 오기 전에 학교으로 전화 한 통이 왔어.”

학부모: 그 반 학생들 상태 어때요?

선생님: 누구십니까?

학부모: 내 딸 전학가려고 하는데 그 반 학생들 상태 어때냐고요? 문제되는 학생들 있어요?

선생님: 어머니, 지금 수업시간에 전화해서서 반 학생들 상태 어떠냐고 물어봤나요? 저한테는 우리 반 학생들이 최고이고 문제되는 학생은 없습디다.

황당하고 무례한 전화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학생은 전학을 왔다. 전학 3일째부터 학부모의 밤늦은 전화는 시작되

었다.

‘학생들이 딸과 안 놀아 준다’, ‘학교도 서실 이용, 급식은 마음대로’, ‘집에서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려서 해결해 달라’는 사소한 내용부터 학부모의 개인적인 고민, 가정사, 그 전 학교에서의 일 등 가정 문제까지 쉽이 계속되었다.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보내는 장문의 문자들. 답이신 생님과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다른 교직원에게까지 전화하는 일. 계속된 전화와 항의성 발언과 불만, 이어지는 상담 그리고 반복되는 다른 반 학생,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다름... 경찰서로 이어지는 상담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었고 교직생활에 대한 자신감은 급격히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이 선생님은 교장선생님과 동료 교원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으로 힘든 나날을 견뎌냈고, 학생은 3개월 후 집안 사정으로 전학 온 학교로 다시 재전학을 갔다고 한다.

낙타는 삼키고 모기는 뱉는다는 말이 있다. 나라의 도둑을 잡고 조그마한 부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청탁금지법 앞에서 스승의 날은 쓸쓸하다. 꽃 한송이 줄 수 있네 마네로 이렇게 입살에 오를 바에야 ‘굿바이, 스승의 날’이 더 좋지 않을까.

5·18 37주년 릴레이 기고

춧물로 있는 오월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5·18 교육’

어쩌면 공자 말대로 우리의 역사에서 ‘전두환’이라는 비극은 그가 ‘제대로 된 배움(교육)을 받지 못한’데 있었는지 모른다.

물론 지금은 누구나 느끼듯이, ‘제대로 된 교육’이 학교를 오랜 시간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학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가 곧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최고의 성적으로 서울대에 입학하고 사범시험에 합격하고, 국회의원을 지내고, 두 번의 장관과 정부수석을 역임했지만, 무려 만 명에 달하는 한 나라의 문화계 인사들을 찍어내는 공작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한 사람. 조운선을 보면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검사가 되었다는 꿈을 어릴 적부터 꿈 사람, 서울대에 입학하고 20세에 최연소 사범 고시에 합격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최연소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을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비극을 낳은 근저에 바로 ‘교육’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육이 이렇게 되었을까? 학교를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더 위험해지고,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폭력적으로 된다면 지금 우리의 학교와 교육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은 곧 ‘우리 사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된다. 학교는 어디까지나 사회의 기관이고 오늘날의 교육은 대부분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가? 어떤 사회를 이루고자 우리는 37년 전 오늘 피를 흘리며 싸웠던가? 지난겨울 금남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가?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였고, ‘자유’였고, ‘민주사회’였다. 곧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그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상 이었고, 우리 투쟁의 이유였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자명하다.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육이다.

‘민주시민의 시민’은 식민지 시대의 ‘식민’이 아니고 독재 시대의 ‘국민’이 아니다. 길들여진 식민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

민이다.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는 국민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말하고 저항하는 시민이다. 그래서 조운선과 우병우가 범정에서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때 그것은 곧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실패를 증명한 것이다.

‘민주시민의 시민’은 이기적인 개인이 아니다. ‘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인간’이며, 그래서 민주 사회의 시민을 기르는 교육은 일신의 영리와 출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다. 민주사회를 살아갈 공공성을 지닌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다.

그래서 5·18 민주항쟁은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각별한 것이다. 총칼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를 위해 저항했던 사람들의 용기, 학살과 죽음의 공포까지 이겨낸 사람들의 연대의 힘, ‘민주시민성’의 생생한 경험이고 모범이다.

올해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37년 전 오늘, 그분들이 거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식들이 작년 겨울 거리로 나섰다. 다음번은 바로 너희 차례다.

社說

어느 공수부대 지휘관의 의미 있는 증언

1980년 5·18 당시 공수부대원의 집단 발표가 군의 작전명령에 따라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명백한 학살 행위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11공수여단 지대장(중위)으로 전남도청 진입작전에 투입된 윤 모 씨는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15일 자 보도)에서 37년 만에 의미 있는 증언을 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시위대를 향한 공수부대의 집단 발표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발표 직전 조직적으로 부대원들에게 실탄을 분배했었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 발표에 참여한 집안군 지휘관의 첫 증언으로, 그동안 집단 발표는 군의 지휘권 행사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충격적인 사실은 무장을 하지 않은 시위대를 향해 무릎화 및 었드려와 자세로 조준 사격을 했다는 점이다. 인명 살상을 위한 명백한 살인 행위라 볼 수 밖에 없게 하는 대목이다. 필요 이상의 무자비한 진압 원인에 대해서는 인명 살상 경향이 있고 전투력이 월등한 월남전 참전 용사를 시민들의 시위 현장에 투입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

증언에는 계엄군 지휘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진입이 더 잔인했다는 의미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2군사령부가 계엄군을 공식 지휘하지만 실제로는 정호용 특전사령관의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휘 계통이 정호용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있어 의미 있는 증언을 했다.

올해 국과수를 통해 새로 밝혀진 전일 발당 헬기 기총소사도 그의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다. 공수부대의 기습 작전이 헬기로 선제공격을 한 후 이뤄지는 것인 만큼 단연한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흔히 5·18의 3대 과제로 발표 명령자 색출, 헬기 기총소사 규명, 행불자 추적을 꼽는다. 37년을 맞는 올해 5·18은 국과수 조사를 통해 헬기 기총소사를 밝혀냈다. 이제 발표 명령자를 밝혀내는 일도 이번 공수부대 지휘관의 증언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어렵사리 인터뷰에 응한 공수부대 지휘관의 바람처럼 5·18 당시 진입 작전에 투입됐던 더 많은 관계자들의 의미 있는 증언을 기다린다.

이제야 맘껏 불러 보는 ‘그때 그 노래’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민심을 읽었다. 조기 대선으로 이전 정부와의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총리와 함께 또 한 사람의 사표만큼은 서둘러 처리했다. 바로 박승춘 보훈처장이다.

각 부처 장관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문 대통령이 선별 수리함으로써 박 처장을 사퇴시키자 ‘오래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속 내려가는 듯하다’며 시원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동안 호남 사람들이에게 박 전 처장은 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그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아래 철저하게 광주·전남 민심을 외면하고 5·18을 유린해 왔다. 그는 국회가 지난 2013년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는데도 5년째 무시해 왔으며 제정이 아닌 합창 방식을 고집하

는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5·18기념식은 매년 ‘정부 따로, 시민 따로’의 반쪽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국회는 차라리 박 처장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문 대통령은 ‘집권하면 즉각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제 그 약속을 실현했다.

그리고 곧바로 문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를 앞으로 다가는 이번 5·18기념식에서는 제창 형식으로 이 노래를 부르도록 국가보훈처가 식순을 짜고 있다고 한다. 그날, 우리 모두 맘껏 불러보자. ‘앞서서 나다니 산 자여 따라라’

無等鼓

첫 지리산 종주에 나선 때는 대학 신입생이던 1980년대 중반의 여름이었던. 당시 지리산 산행이 처음이라 과연 제대로 종주를 할 수 있을까 염려하며 출발했다.

사백년 구례구역에서 내려 군내버스로 이동해 화엄사에서 종주 첫걸음을 내디뎠다. 티셔츠와 청바지, 운동화 차림에 쌀과 부식거리 이것저것을 잔뜩 집어넣은 배낭을 짊어졌다. 그 위에는 묵직한 텐트를 올렸다. 자그마치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라고 쓰인 비를 보며 마치 성년의식을 치른 듯한 뿌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산은 중산리 방향으로 했다. 이후에도 친구와 또는 혼자서 지리산 종주를 몇 차례 했지만 첫 경험 같은 강렬한 인상을 받진 못했다.

지리산 종주 코스 가운데 ‘화대종주’ 구간이 가장 길고 전통적이다. 화대는 구례 ‘화엄사’와 경남 산청 ‘대원사’의 머리글자를 따서 명명했다. 자그마치

47km에 달한다.

최근 광주 ‘나사모(나누며 사는 모임) 산우회’(회장 임동진)

지리산 화대종주

가 올해로 12번째 지리산 화대구간 당일 종주를 마쳐 화제다. 나사모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5월초에 화대종주를 실시하고 있다. 김동해(57)·김성익(47) 회원이 가장 빠르게 7시간19분 만에 종주를 마쳤다. 경이로운 기록이다.

참가한 100여 명의 회원들은 ‘자신의 극한을 시험해 보기 위해 종주에 나섰다’고 말한다. 지리산은 수많은 동식물을 품고 있는 자연의 보고(寶庫)이면서 인간의 의지를 북돋우는 등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의 성적으로 서울대에 입학하고 사범시험에 합격하고, 국회의원을 지내고, 두 번의 장관과 정부수석을 역임했지만, 무려 만 명에 달하는 한 나라의 문화계 인사들을 찍어내는 공작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한 사람. 조운선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을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비극을 낳은 근저에 바로 ‘교육’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우리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